

4월의 기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1. 세상 사람들은 대립과 분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님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하나 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하늘의 것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3.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에 처하더라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우리가 능히 감당할만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4.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선한 것을 본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5.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님의 세계 선교를 향한 비전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전 세계의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오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온전히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하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 계심을 확신하는 부활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 순복음신안산교회(최용우 목사님) 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태승, 이태원,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무명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계좌번호 181-22-02127-7 (하나은행)
 예금주 : 디시이엠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회복된 인간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 아무리 잘 먹어도 육이고 아무리 잘 입혀도 육이고 아무리 교육을 잘 시켜도 육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으로 난 사람은 언제나 육에 속할 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 갔다가 참 재미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외갓집에서 계란을 품고 있는 암탉에게 오리 알을 안겨서 오리 새끼를 낳았습니다. 오리 새끼가 처음에는 어미닭을 졸졸 따라 다녔습니다. 그런데 물가에 가자 오리 새끼들은 누가 가르쳐주거나 한 듯 일제히 물속으로 다이빙해서 들어가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새끼인 줄 알고 있는 어미 닭은 제 새끼가 물에 빠진 줄 알고 “꼬꼬덕! 꼬꼬덕!”하면서 안달을 하는데 오리새끼들은 유유히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옛말에 “오리 새끼 물로 가고 꿩 새끼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리가 물을 좋아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오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꿩이 산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허탈한 것을 좇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낼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 최악의 바다에서 헤엄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입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선교사역을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April News Letter

David Cho Evangelistic Mission

DCEM 현장 르포로 되돌아보는 2002년 해외성회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성회>



▲ 수라바야 베다니교회를 가득 채운 군중

인도네시아는 현대와 고대가 섞여 있는 나라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문화와 풍습을 지닌 나라이다. 빌딩들이 즐비한 수도 자카르타의 현대 문명과 달리 파푸아 와메나 섬은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진 오지이다. 어느 선교학 교수는 자신의 책 제목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리안자야까지(from Jerusalem to Irianjaya)’로 정하기도 할 정도로 과거 이리안자야로 불렸던 파푸아는 지구에서 제일 오지인 곳이다. 지구상에서 아직 식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와메나의 발견되지 않은 숨겨진 부족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인도네시아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부족마다 문화와 풍습들이 다른 회교의 땅 인도네시아에서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초청하여 2002년 7월 개최한 성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기적을 회고해 보고자 한다.

2002년 7월 2일부터 4일까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베다니교회와 자카르타 샤론교



▲ 말씀을 선포하는 조용기 목사와 통역하는 아랍 나우웨이 목사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를 마중나와 환영하는 현지목회자들



▲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초청 성회 현지 현수막

회가 주최하고 DCEM이 주관한 ‘2002 인도네시아 국제교회 성장세미나’에 참석한 조용기 목사는 인도네시아의 근황을 지적하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회를 주최한 베다니 교회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는 “세계적인 성령운동가인 조용기 목사의 메시지를 오랫동안 고대해 왔다”며 “이번 국제교회성장대회는 이적과 변화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또한 뇌손상으로 인해 정신지체가 된 아들이 치료받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 조용기 목사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며 조목사와의 개인적인 친분을 소개했다. 1971년 출산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은 아들의 모습을 보고 절망에 빠졌을 때 당시 조용기 목사는 그에게 정상적으로 자라는 아들의 모습을 상상하며 3개월동안 끊임없이 기도할 것을 권했다고 한다. 그는 조목사의 충고를 따라 기도했고 아들이 완전히 치유받는 기적을 체험했던 것이다.

한편 교회성장대회에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5일 말랑 에클레시아순복음교회 교육관 현장예배에서 설교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는 자카르타 샤론교회(담임목사 야곱 나우웨이) 기공예배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오후에는 일일 성회를 인도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번 인도네시아성회는 해외에 있는 지성전에서는 처음으로 순복음동경교회에서 찬양단을 파견, 성회를 도왔고 이에 현지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 감탄하며 이들의 선교 열정에 깊이 환호했다.

조용기 목사는 1979년을 시작으로 2002년 7월로 다섯 차례에 걸쳐 인도네시아에 방문, 성회를 인도했다. 영적 능력과 목회 경험을 사모한 현지 교역자들 및 성도들이 대거 참석한 2002년 7월 성령운동은 최대 모슬렘국가인 이곳의 복음에 대한 열기와 열망을 확인하는 성회가 되었다.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평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다 가도 폭풍우가 몰아쳐서 삶의 터전이 엉망이 되면,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다면,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불어 닥쳐도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1. 좋으신 하나님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그대로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서가 팍 들어차고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계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 먹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더럽고 공허하고 무질서와 흑암이 팍 들어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혼이 부패하여 정욕의 노예가 되고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 끊이지 않게 되었으며 육체도 병들게 되어 고통당하면서 마귀의 지배하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씻고 용서하여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 예수님의 사명

이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신 동안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행하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정확히 믿고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14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것은, 가난한 자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부요 의식으로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이 가난 의식으로 찌들어 있으면,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서 가난의식과 패배의식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공의식과 부요의식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서는 포로 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지만, 인간은 여전히 마귀에게 묶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마귀의 포로 된 자가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육신의 세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 먼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영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걸어가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영의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서는 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눌린 자"란 질병에 눌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손을 내밀어 여러분을 질병에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아버지요, 어머니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서는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첫 아담 안에서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

서 하나님과의 교통을 잃어버리고, 에덴의 축복도 잃어버리고, 영생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치료도 잃어버리고 저주받아 내어 쫓긴 땅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으며, 영생을 소유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치료와 영원한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3. 회복시키시는 은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우리를,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여기 계신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세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다음 세계도 아름답게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마귀가 더럽게 만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재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기 때문에, 인생에 어떤 폭풍우가 몰아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십시오.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망가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꿈꾸고 믿고 입술의 말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행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창조가 다가올 것입니다.

영산의 신학과 목회

4차원의 영성 (1)



'4차원의 영성'은 오중복음, 삼중축복과 더불어 영산 조용기 목사의 신학을 이루는 중요한 축이다. '4차원의 영성'은 1979년 미국에서 출판한 '4차원: 응답받는 기도의 신세계 발견하기' (The Fourth Dimension: Discovering a New World of Answered Prayer)라는 책에서 시작했다. 이 책이 출판될 당시 여의도순복음교회 성도 수는 5만명이었지만 이 책의 한국어 번역판 '4차원의 영적 세계' (서울말씀사, 1996)가 출판됐던 1996년에는 70만 명이 넘었다. 18년이 흐르는 동안 14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조용기 목사의 믿음이 있었다. 4차원의 영성은 그가 성경에서 발견하고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믿음의 법칙이다. 한국어판 서문에서 조용기 목

'4차원'이란 기하학에서 빌려온 말이다. 두 개의 점을 찍고 그것을 이으면 선이 된다. 이것이 1차원이다. 선과 선들이 연결되면 면이 되는데 이것이 2차원이며, 면과 면이 만나 만드는 입체가 3차원의 세계이다. 우리가 사는 물질세계는 3차원에 속한다. 물질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이다.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며 물질적이다. 4차원의 세계는 비시간적이고 비공간적이며 비물질적인 '영의 세계'이다(최문홍, "4차원의 영성: 영산의 삶과 목회와 신학의 원동력", 「영산신학저널」 29호, 96). 1차원은 2차원에 속하고, 2차원은 3차원에 속하며, 3차원은 4차원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적 세계인 4차원의 세계가 3차원의 세계를 지배한다.

영이신 하나님은 영적 세계인 4차원에 계신다. 사탄 역시 4차원에 있다. 육체적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물질세계인 3차원과 영적 세계인 4차원에 존재한다. 4차원



사는 이렇게 쓰고 있다. "이 책에 기록된 믿음의 법칙은 모두 성경 말씀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가능케 될 수 있음을 밝혀둡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입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 저자의 글). 조용기 목사는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진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목회에 대변혁이 일어났다고 고백했다('4차원의 영적 세계', 61).

안에 하나님, 사탄,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간은 "4차원 중에 가장 낮은 4차원, 마귀는 중간 4차원, 하나님은 가장 높은 4차원"에 있다(조용기, 「4차원의 영성」, 33). 4차원에 속한 마귀는 인간을 지배하고 점령해서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인간적 4차원, 마귀적 4차원에서 건져냄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4차원에 들어가게" 된다('4차원의 영성', 33).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4차원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4차원으로 가득 차게 된다.

(5월호 뉴스레터에서 이어집니다.)

